

시론

인도네시아와 한국

얼마전 경제위기로 인해 IMF 관리체제에 들어간 인도네시아가 마침내 32년 독재의 수하르토 체제를 붕괴시킨 정치변혁을 맞고 있다. 수하르토의 퇴진이 앞으로 인도네시아의 정치·경제상황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인도네시아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세계적 관심국가로 떠올랐다. 한국의 국익과 관련해서도 인도네시아 사태는 다층적인 중요성을 안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아시아 외교에서 정치문화적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인도네시아 사태가 "서울의 봄"에 비견되는 것이라면, 아시아에서 민주주의의 주도권은 그리 쉽사리 정착하기 힘들 것 같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서울의 봄" 이래 10여년의 권위주의 군부통치를 더 겪은 후에야 정치적 주도권을 잡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도네시아가 민주화되기까지 앞으로 10여년을 더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 이런 경우 아시아에서 민주화국의 리더십도 그만큼 더딘 걸음을 걸어야 할 것이다.

두나라 모두 IMF체제 정치와 경제 조율 필요

우선 인도네시아는 '아시아적 가치' 논쟁과 관련하여 논쟁을 정리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싱가포르 前 수상 이광요는 1994년 Diplomacy지에서 서유럽 국가들은 민주주의의 서구적 관점에서 아시아 국가들을 간섭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이곳의 권위주의는 아시아적 전통의 독특한 가치관에 기초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대중씨는 같은 잡지에서 맹자의 정치철학을 계승하는 아시아의 다른 전통 사상을 내세우며 이광요의 글을 비판하고 민주주의의 인류적 보편성을 옹호하였다. 이후 '아시아적 가치' 논쟁은 여러 방면으로 비화하였다.



황태연

(동국대 교수·정치학)

인도네시아의 경제위기와 국정혼란은 50억 달러에 달하는 민간투자 및 공공차관을 공여한 한국을 경제적으로 더욱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한국 정부가 구조개혁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진행하여 독자적인 위기를 극복하는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또한 우리 국민도 대등단결하여 제2기 노사정합의를 기필코 이룩하여 위기극복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한국을 경제적으로 더욱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한국 정부가 구조개혁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진행하여 독자적인 위기를 극복하는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또한 우리 국민도 대등단결하여 제2기 노사정합의를 기필코 이룩하여 위기극복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가 우리 교민들의 보호에 신속하게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각별히 주시시켜주고 있다. 인도네시아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국민은 미국 정부처럼 신속히 대처하지 않는 우리 정부의 능력에 불안해 하였다. 한명의 생명도 소홀함이 없이 국민의 안전을 철저히 지키는 선진국들의 행동을 본받아 한국 정부도 차제에 국제적 돌발사태에 대비하는 교민보호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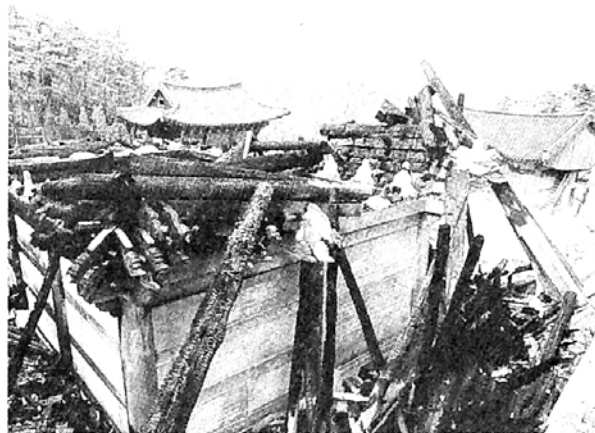
인도네시아 정국혼란 한국경제에 악영향

한국 정부가 우리 교민들의 보호에 신속하게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각별히 주시시켜주고 있다. 인도네시아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국민은 미국 정부처럼 신속히 대처하지 않는 우리 정부의 능력에 불안해 하였다. 한명의 생명도 소홀함이 없이 국민의 안전을 철저히 지키는 선진국들의 행동을 본받아 한국 정부도 차제에 국제적 돌발사태에 대비하는 교민보호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열린마당

사찰보험 가입

불국사와 석굴암이 국내 사찰 건물로는 최대규모인 보험계약액 1백억원의 화재보험에 가입해 화재가 되고 있다. 사찰화재가 빈번히 발생해 보험가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이미 주요 사찰이 화재보험에 가입했거나 보험사와 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찰은 보험료 부담, 보험사의 계약 기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찰의 보험가입 현황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지진해 이교도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방화로 전소된 서울 시내 한 사찰의 대웅전.

“정보보존의지 표현...가입마당”

종열스님 (화엄사 주지)

우리 절은 올해 초 각각전(국보 제67호) 대웅전(보물 제290호) 나한전 명부전 원통전 등 주요 전각을 화재보험에 가입했다. 매년 2백만원의 보험료로 납부하며, 화재가 났을 경우 최고 3억원의 보수를 받을 수 있다.

화재 시 복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려는 생각으로만 보험에 가입한 것은 아니다.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불의의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복구에 도움을 받게 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부처님을 모신 전각을 보존하려는 의지의 적극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정부 보조를 받아 폐쇄화로 카메라도 설치

했다. 그렇다면 당연히 사찰의 예산 가운데 일부는 각종 정보를 보존하는 경비에 투자해야 마땅하다. 물론 화재가 났을 경우 원상 복구는 불가능하다. 특히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보수를 받아 원상상태에 가깝게 새로 지어놓으면 언젠가는 후손들이 문화재로 지정해 보존할 것이다.

근래 들어 여러 사찰이 화재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것도 보험에 가입하게 된 등기이다. 보험가입 이후 사종의 문화재 보호의식도 매우 높아졌다. 매일 한차례 실시하는 소방훈련에 소임자스님은 물론 대중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재정부담 커 보장성상품 필요”

지광스님 (익산 송림사 주지)

지방 작은 전통사찰의 경우 건물 보존차원에서 화재보험의 필요성은 절감하나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쉽게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사찰의 건물이 대부분 목재로 지어진 것이어서 한번 화를 입으면 소실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화재보험료가 높고, 또 어떤 사찰은 보험사의 규정에 위반된다 하여 보험가입이 거절된 경우도 있다. 보장성의 경우라도 새로 짓는 건축실비만 받게 되어 있어 문화재 보존 가치에 예외로 두고 있는 것도 가입하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이다. 전국사찰이 이교도의 방화등

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차선의 방어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공감하나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고 본다. 소멸성보험 위주인 화재보험상품에 보장성보험이 늘어나야 되고 목조건축물에 대한 까다로운 규정을 풀어 주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종단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사찰상황과 맞게 보험회사와 적절히 협상하여 사찰전부 화재보험을 개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사찰보험 가입방법

사찰건축물 4급요율

국조건축은 보험 가입시 4급의 요율을 적용 받는다. 보험 가입의 방법은 일반적으로 두가지 경우가 있다. 하나는 일시불로 지급되는 소멸성이고 또 하나는 장기보장성이다. 예를들면 단청한 30평 목조 건축의 경우 평당 건축비는 8백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30평과 8백만원의 곱해 나오는 2억4천만원이 보험 계약금이 될 수 있고 연간 납입액은 2억4천만원의 0.394%(4급요율)인 9415천6백원이 된다. 일시불로 연간 9415천원을 내면 화재로 가입건축물이 소실 되더라도 2억4천만원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는 소멸성보험이므로 화재를 당하지 않을 경우 환급받을 수 없다.

장기보장성 보험은 별도로 계약금을 추산하지 않고 보험사와 계약한 가입액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 기간(3년 혹은 5년) 동안 납입하고 화재를 입지 않았을 경우 계약액의 10%를 되돌려 받는 경우이다. 4급 목조건축물에 대해 5년 기간으로 2%의 보험을 계약하면 5년간 매월 37만2천원의 보험료를 내게 된다. 만기가 됐을 경우 총 납입액은 2천2백32만원, 계약 기간 동안 화재가 발생하면 2%의 계약액을 지급받을 수 있고 화재 없이 만기가 되면 2천만원만 돌려 받을 수 있다. 지정문화재가 아닌 불상이나 탱화등도 4급으로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험 계약에 관련된 요율의 적용이나 만기시 환급 비율 등은 보험청구가 정한 기준에 준하므로 모든 보험사가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사찰의 목조건축물에서는 화재의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일부 보험사들이 유치를 꺼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험사 선택이 중요하다. 기용우(해동화재보험 중로지점장)

문화재 보험가입

반가상 3백억 '최고' 보물급은 대어때만 도난·파손대비 가입



◇국보 78호 금동 미륵보살반가상.

국보 보물 등 국가 지정 문화재는 전지를 위한 대어·이동시를 제외하고는 보험에 들지 않는다. 문화재는 특별한 기준 없이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금전으로 따지는 것을 금기시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액의 보험료를 기록한 단일 문화재는 금동미륵보살반가상(국보 제78호)으로 3백억원이었다. 반가상을 메트로폴리탄박물관 한국실 개관 기념으로 6월 7일부터 8개월 동안 미국에 머문다. 화재 피해시 1백억원을 받도록 계약한 불국사와 석굴암은 사찰 건축물로는 최고액수이다.

사찰이나 사립박물관, 개인 소장품에 대한 보험은 거의 없고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또 호암박물관과 연세대학교박물관 박물관종합보험에 가입. 문화재의 도난과 파손에 대비하는 보험에 들기도 한다.

조계종 교구본사 24개 사찰 가운데 보험에 가입한 사찰은 쌍계사, 범어사, 불국사, 금산사, 백양사, 화양사, 봉선사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들어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 발생이 빈번한데도 보험가입은 의외로 적었으며, 가입했다더라도 일부 주요 전각에 대한 가입이 대부분이었다. 또 문화재적 가치는 포함하지 않고 건물의 복구 비용만 보상금으로 산정하고 있다.

사찰보험 가입현황

불국사등 10곳 가입 문화재 가치 산정 안돼 보험사 계약 기피

그러나 화재사 등 최근 화재 피해를 입은 사찰은 화재 이후 보험에 가입했다. 지난 해 묘사채가 전소하는 피해를 입은 관촉사의 경우는 당시 보험에 가입해 있어서 상당액의 보상금을 받아 순조로운 복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천태종 구인사는 10여년 전 주요 건물을 보험에 가입했으며, 정기적으로 소방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는 아예 사중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없었거나, 재정적인 부담이 커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가 계약을 꺼리는 경우도 있다. 제주 관음사는 2년전 화재보험에 가입하려 했으나 보험사가 화재 위험성이 높은 목조건축물이라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대흥사의 경우 보험료 산출이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보험사와 협의의 계속하고 있다.

Advertisement for '20C의 창조자 - 보르헤스의 불교 강의' (The Creator of the 20th Century - Borges's Buddhist Lectures). It features a portrait of Jorge Luis Borges and text describing his influence on Buddhist thought. The book is priced at 6,000 won.

Advertisement for '영혼을 천도하는 연화심' (Transcending the Soul with Lotus Heart). It features a portrait of a woman and text promoting a book that helps with spiritual growth and overcoming illness. The book is priced at 24,000 won.